

4·10 총선 공소시효 한 달여 앞...경찰 수사 '속도'

광주·전남청 각각 66건·82건 중 4건·2건 남아 현역 의원 다수 포함...이달 중 '첫 재판' 예정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전남경찰이 공소시효가 오는 10월16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 관련 66건(99명)을 수사해 현재 4건(24명)을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62건(75명) 중 혐의가 입증된 17건(3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5건(3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 광주경찰이 수사했던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선거 폭력 9건,

현수막·벽보 훼손 7건, 금품 수수 5건, 사전 선거운동 1건 순이었다. 기타 위법 행위도 8건 있었다. 광주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 동남을 안도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포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안의

원의 친척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밖인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의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등 3명은 당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께 후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불법 발송하고 경선 운동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송치된 사건은 31건(45명)이며 또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며 대가로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광주 지방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4·10 총선 관련 82건(113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현재 수사 중인 2건(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송치된 사건은 31건(45명)이며 나머지 49건(63명)은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남에선 현역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엇박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또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을 받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아직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공소시효 전까지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쌀값 보장 촉구하는 광주시농민회 4일 오전 광주시청 행정동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촉구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농민회 제공)

아파트 202채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 송치

전남경찰, 구속된 주범 60대 외 8명...피해액 더 커질 듯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광양 일대 아파트 202채를 매입한 뒤 총 100억원 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에 따르면 최근 사기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8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양 일대에서 매매가가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한 아파트 202채를 매입했다.

이후 매매가보다 2천만~3천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다 전세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보증금 미반환 세대는 121곳, 편취액은 100억원 상당이다. 다만, 이들이 맺은 다른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일도 하나둘씩 도래하고 있어 피해액

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A씨 등을 대신해 보증금 총 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특혜성 납품' 이용섭 前 시장 동생 법정구속

법원, 쌍방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6개월 유지 판결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납품 계약을 따 낸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노리는 호반건설(현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1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

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9월 호반과의 철근 공급 계약은 정상상 정상적이었고, 이익을 거둔 것은 공교롭게 공사 지연으로 철근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후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돼 이례적이고 특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호반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자체가 호반건설에 우

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했다"며 "이로써 호반은 중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사 임단협 타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던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4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호남권역재활병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사후 조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이날 오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안에는 25% 임금 인상을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하고, 급식비·직급 보조비 등 일부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성학 기자

'사건 브로커' 연루 檢 수사관 항소심도 실형

수사 편의 제공...법원, 징역 1년 등 원심 유지 판결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300여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심씨는 지난 2020~2021년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심모(63)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투자사

기법 탐모(45)씨에게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 심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적이다"며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브로커 측과 수사 편의 제공에 의사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 이들에 대한 1·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재영 기자

여고생 폭행 돈 뺏은 자매 '중형' 구형

사이가 틀어진 여고생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자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고성영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B(양)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자매 관계인 이들은 지난 5월19일 광주 남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C(양)을 불러 내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양)은 범행 전 C(양)과 앞단 사이였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언니인 A(씨)에게 '손 좀 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등을 구형했다. A(씨)와 B(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